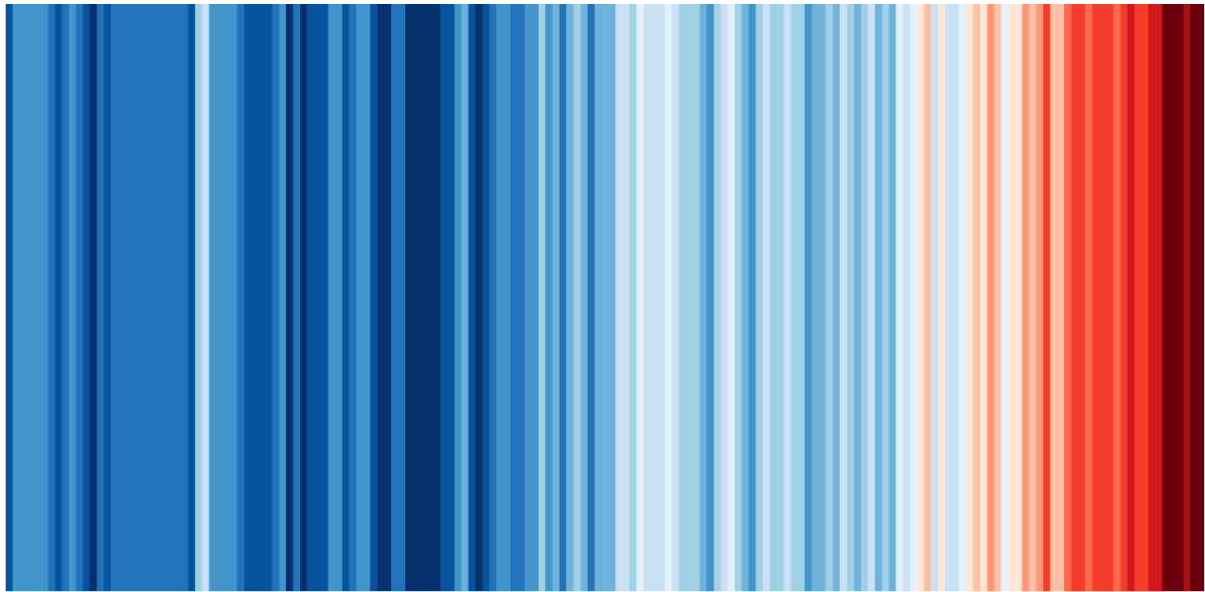


## 온난화 줄무늬, 기후 행동의 시급성 실감케 해

2021.6.21.자 WMO 기사  
APCC 전문위원 김세원 번역



전 지구 온난화 줄무늬(warming stripes): 1850년부터 2020년까지 전 지구 연평균기온을 파란색과 붉은색 계열의 색으로 나타낸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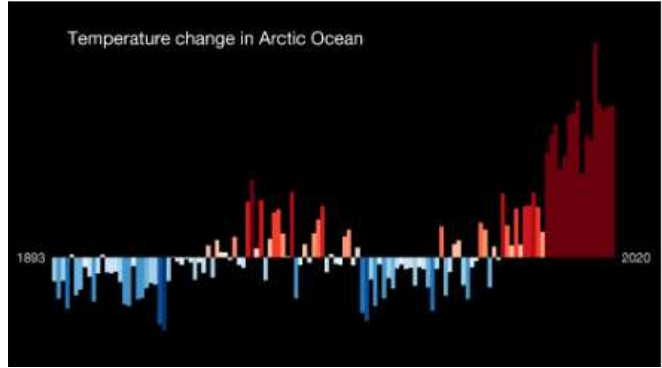
방송국 기상학자들과 기후과학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높이고자 'Show Your Sripes'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그들이 'Show Your Sripes' 데어로 정한 하지/동지 중 하나인 하지 즉 6월 21일 한자리에 모인다.

유엔 기후변화, 세계기상기구,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캠페인은 오는 12월 글래스고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회의 COP26에서 강력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모멘텀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올해 2021년은 기후행동의 성패가 걸려있는 해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이후부터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더욱 자주 더욱 강력해진 가뭄, 홍수, 폭풍과 같은 최악의 재난을 방지할 수 있다는 희망의 창문이 빠르게 닫힐 것이다.

이 캠페인은 영국 레딩대학교의 기후학자이자 IPCC 6차 평가보고서의 주 저자인 Ed Hawkins 교수의 데이터 시각화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는 각 국에서 과거 최소 100년 동안 측정된 기온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낸 '온난화 줄무늬' 라는

그래픽 제작을 주도해왔다. 줄무늬 막대 하나는 해당 국가의 연평균 기온을 나타내며 국제 공인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한다.



Hawkins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온난화 줄무늬는 세계가 온난화 되고 모든 국가가 온난화되고 있음

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간단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방법입니다. 이 그래픽은 여러분이 사는 어느 곳이든 기후 변화로 인해 커져가는 위험과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자는 취지의 지역 대화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온난화 줄무늬 색깔의 변화 추이를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사실상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줄무늬가 파란색 위주에서 빨간색 위주로 바뀌었는데, 이는 그 나라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곳은 북극으로, 지구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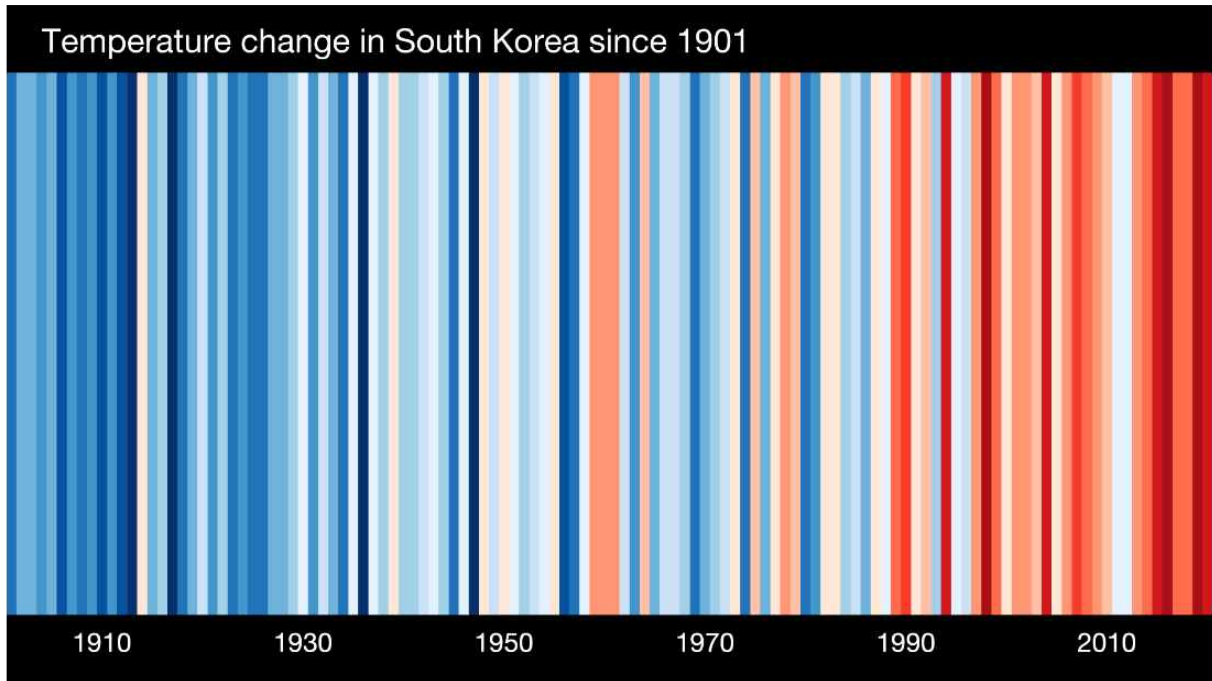
이 캠페인은 변화하는 기후와 그것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실을 연구하고 보도하는 주요 과학자들 및 언론인들의 독립 단체인 Climate Central과 함께 운영된다. TV 기상통보관들과 기상학자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들은 방송과 소셜미디어 포스트에 온난화 줄무늬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TV 기상통보관은 훌륭한 기후 전달자입니다. 여러분은 기후변화와 극한 기상의 위험성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상·기후 포럼이 주최한 TV 기상통보관 워크숍에서 WMO 사무총장 페터리 탈라스 박사가 한 말이다.

그는 또한 “WMO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은 기록상 가장 뜨거운 3년 중 하나였고, 최근 10년만 해도 역대 가장 뜨거운 10년이었습니다. 지구 전체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2℃ 높았으며, 빙하는 계속해서 녹아 사라지고 있고, 그 영향으로 해수면 고도가 높아지고 있고 수질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캠페인에 방송국 기상통보관과 일반 대중의 참여가 요망되며 참여 방법은 자신들의 사는 지역 또는 나라의 해당 그래픽을 내려 받아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

를 이용하여 #ShowYourStripes와 #COP26을 게재하는 것이다.



레딩대학의 'Show Your Stripes' 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우리나라의 1901-2020년 온난화 줄무늬